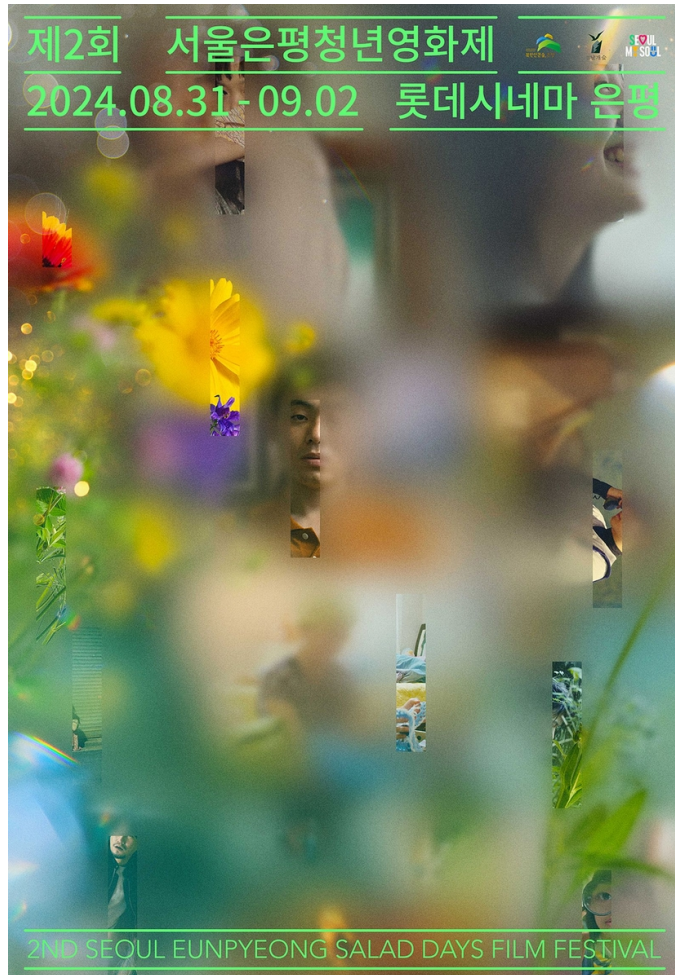


은평구 '제2회 서울은평청년영화제' 31일 개막

송고시간 | 2024-08-21 16:00



서울은평청년영화제

[은평구 제공. 재판매 및 DB 금지]

(서울=연합뉴스) 정준영 기자 = 서울 은평구(구청장 김미경)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롯데시네마 은평에서 제2회 서울은평청년영화제(SESFF)가 열린다고 21일 밝혔다.

지난해 처음 개최된 이 영화제는 단편영화가 설 곳을 잃어가는 현실에서 청년영화인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함께 응원하는 자리다.

올해 116개국에서 총 4천350편이 출품됐다. 국내 작품 1천259편, 해외 작품 3천91편이다. 이 가운데 예선·본선 심사를 거쳐 선정된 32편을 영화제 기간 만날 수 있다.

구는 이번에 1편의 제작지원작을 선정해 제작비와 촬영장소 협조, 멘토링 등을 지원했다.

31일 개막식에는 구의 제작지원작인 김태양 감독의 '나만 아는 춤'과 개막작인 이이다 감독의 '디-데이 프라이데이'가 상영된다. 황금날개상, 심사위원특별상, 샐러드데이즈상 등 6개 부문의 시상도 진행된다.

3일간 국내 경쟁 6개 부문 26편과 국제 초청작 4편이 상영된다.

영화 상영 후 배우, 감독과 소통하는 관객과의 대화 등 부대행사도 열린다.

네이버 예약이나 서울은평청년영화제 누리집을 통해 예매할 수 있고 관람료는 무료다.

이 영화제 조직위원장인 김미경 구청장은 "미래의 영화계 거장들을 처음으로 만나며 첫걸음을 응원하는 청년영화제가 두 번째 개최인데도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게 돼 기쁘다"고 말했다.

prince@yna.co.kr

제보는 카카오톡 okjebo

<저작권자(c) 연합뉴스, 무단 전재-재배포, AI 학습 및 활용 금지>

2024/08/21 16:00 송고

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

Copyright (C) Yonhapnews. All rights reserved.